

無量寺五層石塔 解體와 組立

洪 思 俊

無量寺五層石塔(寶物 第一八五號)은 扶餘郡 外山面 萬壽里에 所在한 無量寺 境內에 位置한 石塔으로 自由黨時代 基壇組立石의 一部가 틀어 떨어져서 倒頭우려가 있다 하여 郡費로 臨時 救急의 손을 보았으나 當時 修理가 시멘트로 孔隙을 막는데 不過하였음에서 다시 十餘年이 經過한 一九七一年度에 本格的인 解體修理를 加하게 된 것이다.

이 無量寺에는 石塔以外에도 石塔前에 있는 石燈(寶物 第二三三號) 一座와 重層極樂殿(寶物 第三五六號) 一棟이 指定된 寺刹이며 其他 幢竿 支柱 一基가 入口 右側 空地에 完全히 남아 있고 極樂殿內에 奉安한 土佛 三座에 中央의 阿彌陀坐佛(坐高一八尺 胸圍二四尺)과 左右脇侍에 觀世音과 大勢至菩薩(各 坐高一六尺 胸圍一八尺)이 南韓寺刹에서는 볼 수 없는 巨軀의 佛像이고 極樂殿內에 所藏한 掛佛은 釋迦佛畫(長 四五尺、幅 二五尺二寸五分)로 朝鮮朝 仁祖五年(西紀一六二七年)에 만든 壯大하고 描寫도 不凡하며 鮮明한 彩色은 그리 많지 않은 佛畫라 하겠다. 또한 中形의 梵鐘이 亦是 極樂殿內에 있는데 그 銘文을 보면 「崇禎九年 丙子四月日」 忠淸道 鴻山縣 北面 萬壽山 無量寺 大鐘鑄成 「曹溪宗大禪師 瑛珪比丘」(以下比丘名異)라 하여 朝鮮朝 仁祖一四年(西紀一六三六年)에 鑄造한 것을 알았는데 壬辰倭亂때 當寺가 灰燼되고 仁祖때 再建寺院에서 梵鐘과 佛畫가 造成된 것으로 믿어진다. 이와 같이 寺刹로써 갖추어야 할 諸般機器가 있는 곳은 그리 많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無量寺의 創基가 寺刹側의 말로는 新羅 梵日國師의 初創이라 傳하고

있으나 周圍의 瓦當이나 石造遺物의 破片 其他 礎石에서 나타난 時代相은 新羅보다도 高麗時代의 性格이 多分히 있으며 더우기 이번 石塔解體時 出土된 佛像으로 보아서 高麗時代에 創寺를 짐작하게 된다.

한편 寺刹周邊의 山川을 一瞥하면 標高 五七五m 萬壽山이 南向하여 左右로 山脈이 뻗어내려 臨水臺(外山面所在까지 2km를 내려와서 長谷을 이루었고 無量寺 基地는 右側(山勢의) 山脈中 작은 來龍이 東向하여 내려온 山麓에 南向하여 있어서 臨水臺가 바라보인다. 대개 山寺란 寺後背景이 山으로 雍圍되는 것이 常例라 하겠는데 無量寺는 山來龍은 東向에 寺向은 南을 하고 있어서 背景이 없는 것같이 되었으니 이는 高麗 當時 風水說에 依한 寺院基地를 擇한 듯 하다. 當寺東側에는 長谷에서 흐르는 淸溪가 四時를 不拘하고 잔잔히 어울쳐 흐른다. 俗塵을 씻고 淸淨한 心琴을 가라 앉히려는 江湖의 詩人墨客이 自古로 出入이 잦았던 것을 알겠다. 寺後 細川을 건너면 三間瓦葺의 民家 一間에서는 世祖時 生六臣中 金時習 自畫像이 걸려 있고 이분의 浮屠가 寺南浮屠田에서 있으며 日政時 瀑風으로 巨木이 쓰러지는 바람에 浮屠가 倒壞됨에서 浮屠內 舍利具가 發見되어 扶餘博物館에 陳列된 것은 이미 世人이 다 아는 事實이다. 이와 같이 寺觀이 莊麗하고 山水가 幽邃하여 春秋에 이곳을 찾는 人士와 修學旅行團의 발자취가 끊이지 않으나 現在로는 交通이 不便함에서 夏冬에는 조용한 곳을 찾는 試驗工夫學生들이 찾는다고 한다. 여기에 添加할 말은 近者 外貨獲得의 口實로 萬壽山中腹에서 發現된 圭石採取로 因해서 秀麗하던 寺院의 背後景山이 一時에 採掘되는 土沙에서 正面으로 沒風致한 環境을 만들어 往來人士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寺院僧侶도 勿論 當局에 여러번 陳情을 내었으나 效果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寺刹入口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作業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二

無量寺 石塔을 解體와 組立하기는 一九七一年 八月二十八日~九月一日에 解體하고, 組立은 今年 九月七日~今月 十四日까지 前後 十四일이

결렸는데 당시의 분담은 다음과 같다.

主管 文化財管理局

經管 忠清南道文化公報室

監督 檀大博物館長 鄭永鎬

實測 文化財專門委員 洪思俊

施工者 長韓建設 鄭復永

解體에 앞서, 極樂殿의 位置를 보면 南北子午線上에서 九度西向하여 있음을 알겠고, 五層石塔도 現極樂殿 中央線에서 南을 바라보면 二五 cm 가 東側으로 편재하여 있으며 따라서 石塔前 石燈位置는 塔中心線에서 亦是 一三 cm 가 東便에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번 解體하게 된 것은 石塔全體가 地覆石西側을 零으로 잡을 적에 石塔東便의 北이 一度五分傾倒하였음에서 基壇의 石材組立들이 自然 空隙이 생기면서 石塔基壇隅柱石들이 제 位置를 벗어나게 되는 데서 이번에 解體와 組立作業을 開始한 것으로 본다.

解體는 相輪部를 爲始해서 塔身部와 基壇部를 次第로 作業하여 들어간 것이다.

相輪部

相輪部에 있어서 現存한 것으로는 圓形의 仰花石(高 一三·八 cm, 上面徑 四八 cm, 下面徑 三〇 cm)라 圓形의 그 받침石 高 一四·三 cm, 直徑 二六 cm) 또는 切頭半球形 覆鉢石(高 二五 cm, 下徑 五四 cm)와 露盤도 方形板石(高 七·五 cm, 一邊 七九 cm)에 四隅에는 隅柱가 陽刻된 받침石(高 二八·五 cm, 一邊 五九 cm)인데 仰花 二個石, 覆鉢 一個石, 露盤 二個石이 되는 것이다. 仰花石은 周表面에 八瓣蓮花와 그 間地에도 上·下二重의 蓮花八瓣을 陽刻하여 相輪을 裝飾하였으며, 露盤받침石 下部의 四面에는 橫列로 三處小孔이 配置하였는데 東側은 二孔이 있다. 아마도 이 小孔들은 石塔의 莊嚴에 使用한 痕跡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仰花石以下 露盤받침石까지 五個石 中央에는 札柱를 插入하였던 圓孔이 貫通하고 있는데 札柱孔은 仰花石에는 直徑 三·八 cm, 覆鉢에는 上部의 圓孔이 直徑 七 cm, 下底가 直徑 一九 cm로 되고, 露盤에는 札柱孔이 上部直徑 二〇 cm, 下底直徑 二二 cm이다. 이같이 札柱孔이 上孔보다 下底孔이 커진

것에는 札柱를 插入한 動搖를 막기 爲하여 下底에 補鐵을 堅插한데서 潤孔이라 본다. 仰花石 위에 있는 半球形 一個石(高 一八·二 cm)이 놓인 것은 鐵札柱를 撤去하고 나서 雨水를 막기 위한 後輔로 보며 石塔造成時의 石材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相輪部의 全高는 半球形石을 包含해서 現在 高 一·〇八三 m이다.

塔身部

塔身部에 있어서 石塔蓋石이 第五層에서 第一層까지 蓋石底面에 四側簷牙를 沿하여 홈이 파였고 蓋石의 層段이 別個로 되어서 蓋石底面을 層段部가 約 三 cm가 들어가도록 파고 끈 것이 다른 石塔에서는 볼 수 없는 現狀이다. 第五層蓋石은 四枚로 構成, 各石을 銀裝으로 물려 있는데 蓋石 一邊長이 各 一·八八 m이고 露盤받침石下邊 五九 cm에 比하여 蓋石이 이것을 받고 있는 部分은 六二 cm로 若干 外側에 나오도록 되었으며 蓋石高는 二五 cm이다. 그리고 蓋石받침은 南北 二枚로 놓고 亦是 이 二枚石에는 左右兩側에 銀裝으로 굳이었는데 받침石 高는 一四 cm이다. 앞에 말한 札柱孔이 第五蓋石 中央을 貫通하여 이 받침石上面에서 그치고 있다. 第五塔身은 四枚板石으로 組立하였던 것인데 一石長이 七一 cm에 높이 二九 cm이다. 內部에 舍利裝置를 한 高 二六 cm, 幅員 三三·二七 cm의 石塊에는 直徑 一五 cm의 圓孔이 파 있는데 深은 一〇 cm이었다. 이 石函에서 나온 內容物에는 靑銅(外)盒에 盒(內)이 들고, 그 안에는 水晶小瓶과 陀羅尼經·紫檀木·芳粉香 등이 盒內에 充滿하여 있으나 이미 洩水에서 黑色으로 變形되었다. 水晶瓶內에는 靑色舍利一顆가 있고 靑銅瓶에는 灰白色舍利 九三顆가 들어 있었다. 石函에 蓋石이 없기 때문에 石函內容物이 腐敗變化되었음을 알겠으며 다시 石塔을 組立할 적에는 金瓶을 新造하여 舍利들을 前과 같이 奉安하였다. 第五塔身에 이 石函을 裝置한 그 周圍에는 普通 질흙으로 다진 것을 이번에는 強灰로 堅固하게 하고 石函上面에도 蓋石을 만들어 놓았다. 第四蓋石도 四板石을 連結하여 方形蓋石을 만들어 놓았는데 銀裝을 第五塔身이 가리는 內側에 끼어 있다. 蓋石邊長 二二·二六 m, 高 二二·三 cm이며 第四蓋石層段받침石도 四枚로 되고 四枚石을 亦是 銀裝을 一處式끼어 固定시키어 있었다. 第四塔身石도 第五塔身石과 같이 四枚石으로 組立하였으나 石材가 不足



初層 屋身内の 金銅三尊像



初層 屋身に 奉安하였던 金銅三尊像

한關係인지 東北隅柱만을 別石으로 하여 있었다. 大體로 石塔身橫幅이 九四 cm, 高三二 cm 이었으며 內部는 질흙으로 다진 것을 이번에는 强灰로 다지었다. 第三蓋石을 四枚石으로 第四塔身石下에서 銀裝을 끼어 있다. 蓋石邊長 二·四五 m, 高二七 cm 이며 받침層段石도 四枚로 되고 銀裝으로 固定하였는데 高二〇 cm 이었다. 塔身石 亦是 四石으로 橫長 一·一五 m, 高三六 cm) 組立하였으나 東北과 南北의 隅柱石만은 別石을 세워 있고 內部는 土石으로 充滿시키었던 속에서 鍍金坐佛이 二重蓮座에 앉은 小佛一軀가 出土하였다. 內部측 대신 强灰에 雜石을 混用하여 이번에는 堅固하게 하였다. 第二蓋石은 四枚石으로 되고 銀裝을 兩處에 固定하여 있다. 塔蓋石 一邊은 二·七四 m 에 高二七 cm 이며 層級받침石 亦是 四枚에 銀裝을 使用하여 있다. 一邊長 二·一〇 m, 厚 二一 cm 이다. 塔身石도 四枚石으로 四側을 組立하되 四隅에 隅柱石 一個씩은 別立하여 있다. 隅柱와 板石의 橫長 一·三七 m, 高四一 cm 이며 內部는 질흙 雜石을 썼으나 이번에는 川石과 强灰로 다지었다. 第一層蓋石은 四枚石으로 되고 第四塔身이 놓인 內側에 銀裝을 各二處裝置하였었다. 蓋石邊長 一·九八 m, 高三三 cm 이며 層級받침石 亦是 四枚에 銀裝을 一處式 使用하여 있고 받침石 邊長 二·三二 m, 高一二 cm 이다. 第一層塔身은 四隅柱石에 北·東·南各面에는 一枚板石을 使用하였는데 西面만은 二枚板石으로 되었다. 이 板石들의 橫長은 一·二七 m ~ 一·二八 m 에 隅柱幅 一八 cm, 塔身高는 一·一四 m 이었다. 塔身內에는 川石과 질흙으로 다진 것인데 이 塔身內에서 阿彌陀, 地藏, 觀音의 鍍金青銅佛이 南面하여 發見되었다. 佛像을 爲한 아무런 裝置가 보이지 않았으나 흙으로 佛像들이 空間에서 있도록 痕跡만은 엿보였다.

解體時 發見된 物品으로 第五塔身의 舍利瓶과 第三塔身의 鍍金小形坐佛一軀, 第一塔身內의 三軀佛像들은 無量寺에서 管理保護하고 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말하여 들 것은 塔蓋石四側 正面中央에 第五層에서 第一層까지 小孔이 四處씩에 있고 또는 塔身石 四面下部 中央을 基準해서 第五層에서 第二層까지 小孔이 있는데 第五層은 四個橫列하고 第四層은 五個橫列, 第三層은 六個橫列, 第二層은 七個橫列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關係로 이들 小孔들이 塔蓋石이나 塔身石에 파 있는 것일지 未

하나 石塔造成時에 莊嚴을 하였던 小孔으로 推測되는 것이며 兼해서 各層蓋石 四隅鼻에 風鐸孔이 二處 있는 것도 아울러 적어 본다. 塔身部의 全高는 四·八二 m 이다.

基壇部

基壇의 甲石은 本是 八枚石으로 된 듯하나 現在 北側中央板石이 두쪽 으로, 東側中央板石도 두쪽이 되어서 十枚石으로 構成되었는데 이 基壇의 一邊長은 三·三七五 m ~ 三·四二〇 m 로 四方이 同一한 數値가 아니다. 側面에서 본다면 함지박을 側面에서 본듯한 感이 있어서 上·下平行線에 中間이 內曲되어 있다(厚 二六·三 cm). 基壇面石은 一方에서 보면 左右側 隅柱에 中央에 間柱를 세웠고 柱間에는 板石을 끼어서 一面을 이루었는데 隅柱 四個, 間柱 四個 板石 八枚로 되며 그 높이는 九五·五 cm 가 平均 值고 屏風面石의 橫長은 二·七五 m 이다. 內部空間을 雜石과 質흙으로 메웠던 것이나 이번 改修時는 强灰에 頭大川石을 混用하여 다지었다. 다음의 地覆石은 九枚石으로 方形을 構成하였고 側面에서 보면 基壇甲石을 返對로 얹어 놓은 듯하다. 地覆石의 一邊長은 三·二一三·一八이며 厚 二九 cm 이었다. 그리고 基壇 地覆石下 地臺石은 總十一枚板石으로 方形을 成立시키었던 것이나 解體當時에는 東北隅와 西南隅 二枚石이 缺如되어 있어서 다시 四方尺數를 감안하여 平均 四·一五 m 로 二枚石을 新造簾八하였고, 이 板石의 높이는 一四 cm 이었다. 基壇部는 地上과 같은 構造와 尺數로 地臺石을 除外한 基壇의 全高는 一·五〇三 m 이다.

石塔建立에서 가장 重要하였다고 보는 基壇의 地盤을 살펴보면 塔中心에 該當한 곳에는 巨大한 自然岩石 四個를 集合하였을 뿐이다. 地臺石을 놓을 곳을 自然石으로 굳히어야 할 것과 地壓에 의한 外廓石을 四方 一 m 外로 찾아보았으나 이렇다 할 痕跡이 없고 다만 地面을 다진 石材만이 間或 보이였다. 그래서 中央中心 四個石은 그대로 두고 餘他雜石과 흙을 除去한 後에 地表下 一 m 와 基壇外側으로 다시 一 m 를 擴張 除去한 後 두목도의 石材들을 갖다가 强灰를 섞어서 다지되 前日의 地臺石位置를 감안하여 地平을 잡고 하루를 經過하여 地盤을 굳히었다. 石塔이 從來 東北隅로 기운 것은 그곳을 疎忽하게 다룬데서 傾倒한 것으로 江原道 月精寺塔이 東北側에 기운 까닭과 同一한 現狀이었다.



無量寺五層石塔內發見一括遺物



完工된 無量寺 石燈



完工된 無量寺 五層石塔

以上이 無量寺五層石塔의 解體와 組立의 大略인데 여기에 添加할 것은 五層石塔 前方에 있는 石燈은 改修作業에는 들어 있지 않았으나 石燈全體가 沈下되고 또한 位置도 石塔正中에 있지 않아서 손을 보게 된 것이다.

石燈의 蓮花臺座를 들어내고 地臺石으로 돌아 놓기 위하여 地表下를 파내려가 보니 南北으로 二枚板石의 方形으로 이루어졌는데 一邊長(二石合)이 一·一七m에 厚 一〇cm였다. 이 板石들의 水平을 잡기 위해서 地 地下를 파고 보니 眼象石(高三四cm)같은 人工으로 가한 石材 四個가 無秩序하게 倒臥하여 있었다. 石表面에 붙은 흙을 除去하고 四個石을 맞추어 보니 한 개도 缺失된 部分이 없고 다만 地盤이 弱하여 自然沈下에서 倒壞된 것을 알았다. 四面에 〇形의 眼象이 二區에 있었고 이들 四個石을 맞추어 보니 一邊長이 一·七四五m이었다. 다시 眼象石을 露出시키기 위하여 地下를 더 파내고 雜石과 強灰로 地面을 다지되 石塔의 地覆石 正中南側에서 四·四〇m를 隔하여 石燈의 眼象石北側에 到達하게 石燈의 位置를 잡게 하였다. 이 四·四〇m를 取한 緣由는 石塔과 石燈의 間隔을 適當하게 外觀도 보았거니와 두 石造物을 한 鐵柵內에 包습시키는 데에도 留意하였음이다. 지금까지의 各報告書에 無量寺 石燈의 全高를 蓮花臺石底에서 實測하여 二·五m이었으나 板石과 眼象石이 發見되어 露出시키었음에서 四四cm가 增加된 全高二·九二八m인 것을 적어본다.

三

無量寺境內에 散在한 石造物에 눈을 돌려 보면 아래와 같은 것을 發見할 수 있다.

一、柱座과 甬방을 彫刻한 礎石 一個

寮舍에 附屬된 장독대에 있다. 柱座 直徑 四四cm、甬방石을 凸刻한 幅이 一七二cm.

二、眼象石 一個

寮舍客室로 使用하는 後側의 出入門下에 드림돌로 쓰이고 있다. 二區의 眼象이었던 것이 一區만 남아 있는데 比較的 眼象彫刻의 手法이 美麗하다. 이때 使用했던 石材인지 알 수 없고 現存尺數는 長 八三cm、高 二〇cm이다.

三、塔身石 一個

장독대에 있는데 四隅에 隅柱를 陽刻한 幅 五七cm、高 三八cm이다. 이 장독대에는 石塔面石으로 보이는 板石 四個도 있다.

四、眼象石 一個

앞에서 말한 眼象石以外에 雨花宮後園에 眼象 三區가 있는 石材가 있는데 全長 一·一八m、高 一三三cm이다.

五、其他 石材

板石으로 本來의 目的以外에 使用한 石材는 極樂殿後廊 雨花宮後廊에 많이 박혀 있는 것이다.

六、梵鍾에 對해서는 앞에서 잠깐 말한 바 있다. 鍾銘을 다시 具體的으로 적어본다.

崇禎九年丙子四月日 忠清道鴻山縣北面萬 壽山無量寺大鏡鑄成 曹溪宗大禪師琢珪比丘 忠清都判事德海比丘 大禪師汗仟比丘 尙默比丘 幸全比丘 玄默比丘 禪師元俊比丘 仅叩比丘 一浩比丘 禪師未誓比丘 維那太宗比丘 持殿祖行比丘 持事性敏比丘 書員淨祐比丘 信元比丘 惠云比丘 知甘比丘 惠英比丘 孝立保體 大禪師庶別座成贊比丘 禪師立比丘 昭緣性輝比丘 昭緣录芝比丘 眞靈比丘 一奇比丘 供養主一海比丘 大化主 如言比丘 保體(以上陽刻) 供養大施主李丁伊兩主 鐵物大施主鄭堯信兩主 鐵物施主金者斤金兩主 黃蜜施主白花英之保體 鐵物施主李氏保體 金壽萬兩主 鄭二男兩主 朴氏仁今保體 玉輪比丘 朴祚命兩主 金永卯兩主(以上點刻)

鐘肩帶에는 梵書로 (橫)二行이 있고 前後에는 上·下에

六字大 眞言

破眞地獄이 있다.

鐘의 四處 乳廓下에 是 殿牌形內에 「宗曇盤石三道彌隆」 懸日長明海周
沙界」 二行이 있다.

七、柱聯詩

雨花宮(新建)

事業一燈香火足

生涯三尺短筇羸

鐘聲半雜風聲冷

夜色全分月色明

天衾地席山爲枕

月燭雲屏海作樽

大醉遽然仍起舞

却嫌長袖掛崑崙

靜邀山月歸禪室

閑剪江雲袍衲衣

靜香趙炳鎬靜秀印

冥府殿

地藏大聖威神力

恒河沙却說難盡

見聞瞻禮一念間

利盡人天無量事

靈山殿

千尺係綸直下垂

一波纔動萬波隨

夜靜水寒魚不食

滿船貴載月明歸

極樂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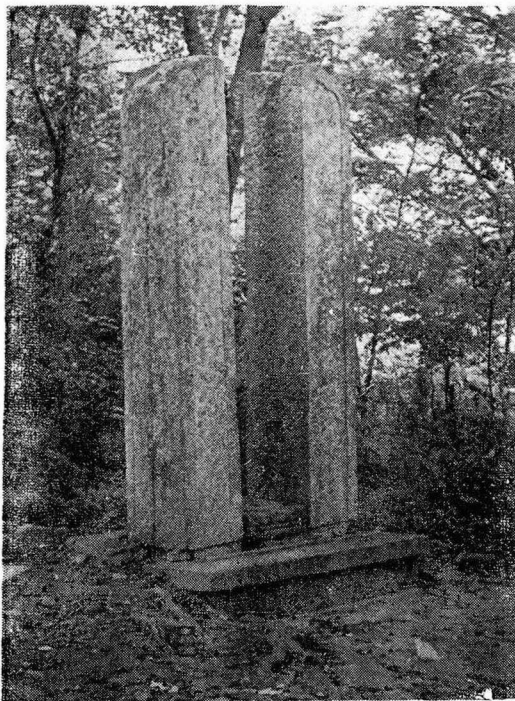
佛智通達淨無碍

一念普知三世法

恒放智日大光明

丁巳六月住持李錦溪

普使群生滅癡暗」皆從心識因緣起」生滅無常無自性」



無量寺 幢竿支柱



崇禎九年銘 無量寺銅鐘